

78. 냉난방시설관리자에게 발생한 급성호흡기능부전, 폐렴, 간질성 폐섬유화증

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행정서비스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망 안OO은 51세 때인 2006년 3월 특발성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을 진단 받았고, 2006.7.15일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망 안OO은 최종 사업장인 구청에서 청원경찰로 2년간 근무하였다. 최종 사업장 이전의 작업장으로는 OO유리공업(주)에서 17년간 냉난방설비관리(15년)와 원료설배합(2년)간 관리하였고 이후 여러 작업장에서 냉난방기관리(6년) 및 공조설비관리 업무(2년)를 하였다. 과거 유리규산 분진, 유리섬유 분진에 노출되었다. 또한 콤프레샤, 냉난방기 운전을 위해 지하 작업을 장기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망인은 평소에 건강했다고 하며, 2006년 2월 미망인은 망 안OO의 손가락이 이상한 것(이후 곤봉지로 진단, clubbing finger)을 발견하였다고 하며, 병원방문을 권유하여 당시 CT와 폐 조직검사를 통해 폐섬유화증(early UIP, with NIP pattern) 진단을 받았고, 폐의 1/3 정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퇴원 후 한 달에 한번씩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약물치료(azathioprin, PDS)를 받았다. 2006.7.월경부터 고열로 응급실 방문하였고, pneumocystis carinii(PCP)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의심되었다(atypical pneumonia). 특발성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의 급격한 악화가 의심되었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7.15일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 안OO은 과거 유리규산 분진, 유리섬유 분진에 노출되었다. 또한 콤프레샤, 냉난방기 운전을 위해 지하 작업을 장기간 하였다. 하지만 망인의 폐 조직검사에서 발견된 microdust 들은 유리규산, 석면 등의 분진이 아닌 헤모시테린을 함유한 흡연에 의한 색소의 가능성이 높았다.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안OO은

- ① 유리공장에서 유리규산 분진과 유리섬유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 ② 콤프레샤운전이 주 업무로 노출량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 ③ 폐조직검사에서 보이는 분진은 흡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 ④ 지하작업으로 인해 분진 및 매연에 노출되었지만,
- ⑤ 지하작업에서의 분진, 배기가스 노출이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 (망)안OO의 급성호흡부전, 폐렴, 폐섬유화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